# 한국 최초 영리병원 제주에서 개원

공공의료 체계의 시험대가 될 영리병원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개원한다.

5일 '한겨레' 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 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개설을 허가 한 것이다. 원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 고 사과했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 '의료 공공성 약화' 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0월 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개설 불허 의견을 권고한 뒤 2개월 동안 고심해오다 이날 개설을 허가하기로 했다. 개설을 불허할 경우 외교문제 비화,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 등 후폭풍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 내의 공공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원 지사가 비록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영리병원의 물꼬를 튼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신청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도 이외에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도 영리병원인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녹지국제병원 외에는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지만 향후 국내 의료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만 진료하도록 조건부로 허가한 데다 성형외과, 피부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만으로 설립되는 병원이어서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이라면서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지 지켜보겠다" 고 말했다.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 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16년 4월부터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안 2만8,163㎡의 터에 778억 원(운영비 110억 원 포함)을 들여 지난해 8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만8,223㎡) 규모에 47개 병상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다.

# '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 보호구역 해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르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4년 만에 최대 규모로, 한국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쪽 지역을 출입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5일 '경향신문' 에 따르면 이번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을 하려면 군 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 지역이나 중요 군사시설 외각 500m 이내 등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은 강원·경기·인천·충남 등의 21개 지역이다. 이 가운데 65%는 강원도, 33%는 경기도 등으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이 대상이 됐다.

특히 강원 화천군에서는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은 64%에서 42%로 낮아진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요청이 있어야 보호시설 해제 여부를 군 당국이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의 대비태세 및 작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 한해서 선제적으로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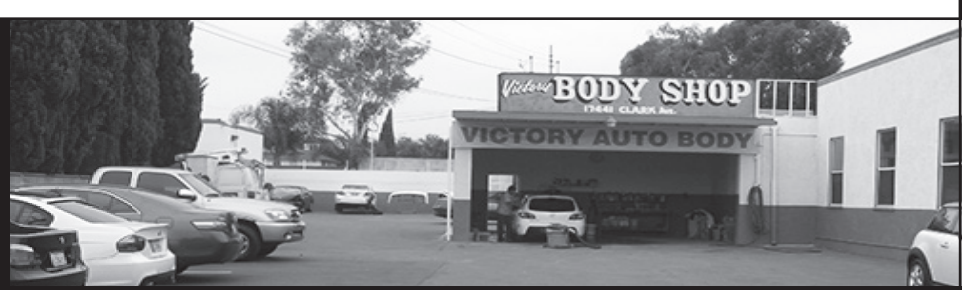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일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당국과 협의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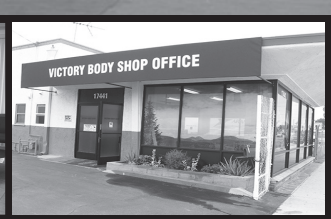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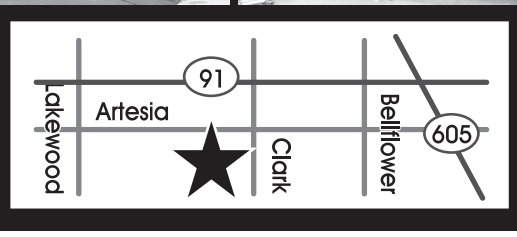
또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2,470만㎡에 한해서 개발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입 시간이 단축되고, 들어오고 나가는 통제소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출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웍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Lease Return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